

한국 과학기술학의 선구자

素民 ‘박익수’ (1924~2006)

글 | 송상용 _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사편찬위원장 songsy63@hotmail.com



한림원
주요인물

지난 11월 27일 소민 박익수(朴益洙) 선생이 82세의 삶을 마감했을 때 언론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를 ‘국내 제1호 과학평론가’로 꼽은 동아일보의 부고가 눈에 띄었을 뿐이다.

소민은 일제하 1924년 함남 이원에서 태어나 경성공업학교 기계과를 마치고 해방 후 서울대 사범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모교와 한양공대에서 무기화학과 자연과학개론을 강의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 때부터 과학 자체보다는 과학의 철학적·사회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다. 한눈을 팔지 말라는 교수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신문, 잡지에 글을 자주 썼다. 그는 1950년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과학 논객이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둘러싼 장내원, 윤세원과의 논쟁은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과학기술학(STS)의 선구자로서 소민의 왕성한 활동은 30대 초반에 두 권의 저서로 열매를 맺었다. 철학자 박종홍의 추천으로 1955년에 출간된 ‘과학의 철학’은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문제들을 다룬 책이었다. ‘신과학사개론’(1959)은 동력을 중심으로 한 시대구분이 이채로웠다. 이 책들은 뒷날 각각 ‘과학의 반사상’(1986), ‘과학기술의 사회사’(1995)로 개정판이 나왔다. 그만큼 소민의 애착이 컸던 책들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사회사’는 2000년에도 다시 개정판을 낼 정도였다.

1960년 한국과학사학회가 출범했을 때 소민은 김두중, 홍이섭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80년대에는 김두중, 권영대에 이어 제3대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었다. 그는 서초동의 개인 사무실을 오랫동안 학회에 내 주며 학회 발전에 공을 들였다.

4.19 뒤 태어난 민주당 정부는 내분에 휩싸인 원자력연구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군사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글을 많이 쓴 소민을 발탁해 수습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소민은 상임 원자력위원이 되어 10년 동안 관직을 누렸다. 그 동안 그는 원자력발전추진위원장, 원자력산업회의 부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

원자력위원에서 물러난 소민은 한동안 재계에 몸을 담았다. 오

래 친분이 있던 동양그룹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동양시멘트의 이사로 있다가 동양시멘트판매(주) 사장을 지냈다. 학자 체질인 그에게 기업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였다.

1977년 과학의 대중화에 관심 있는 학자, 언론인, 출판인들이 모여 한국과학저술인협회를 만들었다. 소민은 홍문화, 김정흠, 이장규, 현원복, 손영수 등과 함께 참여해 초대 부회장, 3대 회장, 명예 회장을 역임했다. 협회는 기대에 못 미쳐 친목단체에 머물렀으나 소민은 늘 그 중심에 있었고 산업시찰을 많이 마련해 회원들을 즐겁게 했다.

소민은 사무실에 과학사회연구소 간판을 달고 은퇴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안전관리 문제로 뛰어다녔고 한전에 쓴 소리를 퍼 부어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형섭은 소민을 가리켜 “원자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 했거니와 그는 오랜 천착 끝에 1999년 ‘한국원자력창업사’ 3부작을 완성했다. 이것은 현장을 지켜 본 과학사학자의 빛나는 업적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소민은 김대중 후보의 과학 특보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대중은 부산 피난시절 면학동지회에서 소민을 만났고 아우를 맡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발하면서 소민은 칠순의 노령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장관급)을 맡았다. 그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렸으나 그의 뜻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소민 박익수는 일제 치하에서 21세기 디지털시대까지 격동기를 살았다. 이 나라의 과학계에 남긴 그의 발자취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지나치게 과학을 사랑한 구세대였지만 인문학적인 여유도 가진 선각자였다. 그가 단순한 과학자에 머물지 않고 일찍이 과학기술학에 눈을 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은 것을 세상은 알아주기에 인색했다. 소민의 바른 소리가 후학들의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㉞